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한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9/7)부터 세례와 입교 준비를 위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제 42 - 35 호

2025년 8월 31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어진 전도사 ( 감사 )  
이어람 · 이어직 집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장성아 집사 ( 생일 감사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지리산 종주여행에서 발견하는 하나님나라

사랑방공동체의 멧쟁이학교에서는 2학기를 시작하는 첫 걸음으로 “지리산 종주여행”을 떠납니다. 형태는 때와 필요에 따라 변화했지만, 대개는 노고단(1507m)방향에서부터 천왕봉(1915)까지 간 뒤에 하산합니다.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여행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등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뎀별로 움직이는 산행길 특성상, 코스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팀원 전체가 목적지에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외길인데다 다른 산행객도 더러 있는 터라, 도보여행처럼 50명에 달하는 인원이 한 줄로 갈 수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를 마무리할 때에 혹 체력이나 근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방학 동안의 꾸준한 운동을 주문할 때가 많습니다. 식사와 숙박을 해야 하는 대피소까지 전진해야 하는데, 체력이 모자라서 산이 어두워질 때까지 걷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죠. 자신이 팀의 발목을 잡는다는 괴로운 생각을 겪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등교를 하는 첫 날 저녁, 멧쟁이 학생들의 얼굴은 아직 실감나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그런데 모뎀끼리 둘러앉아 코펠, 버너, 식량, 옷가지 등을 분배 하면서 점차 진지하게 변해갑니다. 중간중간에 선배들이 후배들의 짐을 잘 싣는지 확인합니다. 빠뜨린 것은 없는지, 옷이 비에 젖지 않도록 지퍼백으로 잘 싣는가 라던지 말입니다. 또 무거운 짐은 대개 힘이 좋은 선배에게, 가벼운 것은 체력 부담이 큰 후배에게 분배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기대 반 걱정 반을 품고 잠자리에 듭니다. 새벽 일찍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날 시작은 차로 도착한 성삼재입니다. 각자 도구를 장비하고, 가방을 매면서 의지를 다집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걸어간지 30분도 안되어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별 것 아닌 오르막인데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져 숨을 헐떡입니다. 처음 오르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비슷한 과정이, 아니 더 힘든 과정이 놓여있을 거란 예감에 눈 앞이 깜깜해집니다. 처음 가방을 내려놓고 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집에 가고픈 생각이 듭니다.

체력이나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산행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칩니다. 때론 그것은 말이나 행동으로도 튀어나옵니다. 눈 앞에 오르막이 보일 때마다 “못가요”라고 외치는 멧쟁이, 너댓 계단을 오

르면 10초 이상 쉬어야 하는 멧쟁이, 쉴 때마다 시무룩한 얼굴로 집에 가고싶다고 말하는 멧쟁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앞뒤로는 신나게 가요와 찬양곡을 노래하는 멧쟁이, 부축해주는 멧쟁이, 따뜻한 태도로 할 수 있다며 격려하는 멧쟁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앞서 말한 어려움을 겪는 멧쟁이들이 전부 완주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지리산이 힘들기만 한 여행이 아닌 것은, 그 안에서 협력과 존중과 신뢰가 꽃피는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도우려 노력하고, 상대를 위해 내 물질이나 에너지를 나누고, 긍정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멧쟁이들은 누군가의 물이 부족하면 자신의 것이 모자라도 나눠주고, 가방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며, 먼저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뒤처지는 모뎀을 도와주기 위해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상 등 개인 사정으로 산에 함께 오르지 못한 멧쟁이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기까지 합니다.

이 산악 종주여행이 단순하지 않은 것은,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이 이 안에서 발견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천둥과 비가 내리는 산을 타면서도 감사를 입에 담고, 장엄한 일출을 보며 찬양을 부르고, 비교적 약한 지체를 기준으로 맞추어 움직이는 모습 모두가 그렇습니다. 약하다고 해서, 경험이 없다고 해서, 도움이 적다고 해서 내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여유가 있으면 그걸 써서 남의 부족을 채워줍니다. 앞선 자는 계속해서 뒤돌아보고, 뒤에 선자는 앞을 살핍니다. 후배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그들의 쌀로 먼저 밥을 짓습니다. 방심할 수 없는 미지의 가능성이 가득한 산속에서, 그렇게 함께 묶인 마음의 끈을 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포기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흔히 갖기 쉬운 자신만의 세계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실수하고 잘못했다라도 고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와 신뢰를 갖게 합니다. 피드백을 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모뎀원의 발목을 잡았다는 자괴를 끌어안고 걸음을 옮겨나갈 힘을 줍니다.

멧쟁이들이 오른 지리산은 각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신뢰하고, 협력하고, 용서하는 장(場)이었습니다. 그것은 천왕봉의 일출보다 더욱 화사하고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나라의 편린을 살짝 엿보며, 오히려 제가 아이들로부터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가, 세계가, 이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곳들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 한주간 말씀

“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  
<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70, 80 / 546

기도 :

성경 : 신명기 4장

제목 :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

1. 내용: 모압 평야에서 다시 들린 하나님의 말씀. (What)

<문단구분>

1~14절 율법을 준수하십시오

15~40절 우상숭배 금지

41~49절 도피성 지정과 머리말

2. 의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Why)

1)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 모음집이다.

2) 광야의 과거와 가나안의 미래를 앞둔 시점에서 들려진 메세지다.

3)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3. 적용: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How)

1)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2) 하나님의 주되심을 마음에 새기고 늘 입으로 고백하자.

## 숨도 은혜였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귀한 찬양으로 힘을 얻습니다.  
한동안 운전하면서 '은혜' 라는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얼마전 친한 지인으로부터 '숨도 은혜였어요' 란 찬양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차안에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듣기도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방해받지 않는 나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좋아합니다.

모든 찬양이 그렇지만 비 오는 날 운전하면서 들었던 이 찬양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찬양 한줄 한줄이 큰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위로받고 은혜받길 원합니다.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그 숨조차 은혜였다는걸  
살기위해 숨만 쉬던 날들, 매일이 버티는 싸움 같았죠.  
눈물로 이젠 고갈된 기도조차 숨긴채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 모든 날을 함께 셧대요. 숨도 은혜였어요.  
제가 몰랐던 그 순간들 주님의 사랑이 제 폐 끝까지 들어왔던거예요.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날 놓지 않으셨어요.  
그 평범한 숨결 안에 기적이 있었어요.  
날 숨기던 시간조차 주님은 날 숨겨 주신거였죠.  
안보이던 그 자리에서 당신은 나를 덮으셨어요.  
지친 마음에 당신의 손길은 너무 조용했어요. 숨도 은혜였어요.  
아무말 못했던 날들 속 당신은 말없이 일하셨죠.  
당연한게 하나도 없었어요.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주님이 대신 올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숨도 은혜였어요.  
그래서 오늘 더 숨쉬듯 당신을 찬양해요."

우리의 모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역대상 16 : 23, 27-29  
9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15 : 7

310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히브리서 13 : 1-8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정재훈 목사

설교자  
미리내사랑방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06

410(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서병욱 임진숙 / 봉헌위원 : 박태규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형제자매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겸손하게 믿음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성도로서의 삶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성도라는 이름.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뒤에는 온유와 인내, 섬김과 신뢰, 평안과 같이 선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도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지향하는 성향을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마다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히브리서 본문은 구체적인 실천을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은 권면은 성도들이 서로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지체들 간에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믿음을 본받음. 또 다른 두 가지의 권면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과 간음을 멀리하라는 것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스스로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생을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확인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이레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개학하고 방학과 달라진 생활에 적응하느라 꾸러기들 몸이 살짝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아침거리를 가져와 차에서 먹기도 했어요. 친구가 아침을 먹는 걸 이해해주고 다른 친구가 맛볼 수 있게 나누어주기도 했어요.

수요일에는 서울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아직 몹시 덥고 벌레들이 자꾸 물어 가려워서 많이 뛰어놀지는 못했지만 거울연못에서 멋진 사진도 찍고 조형물들도 보며 놀았어요. 오후에는 바닥분수에서 물을 맞으며 신나게 놀았어요. 눈에 코에 마구 쏟아지는 물이 좀 힘든 친구도 있었지만 차츰 적응해서 신나게 잘 놀았어요. 돌아오는 차에서 꾸러기들이 모두 잠들만큼 모두 열심히 놀았어요.

방학에 생일을 맞았던 지음이를 위해 생일잔치를 했어요. 친구들은 애정이 듬뿍 담긴 카드를 만들며 준비했어요. 저마다의 개성이 드러나는 멋진 카드를 쓱쓱 잘 만들어요. 선생님들도 정성스레 카드를 만들고 여러날 공을 들여 멋진 왕관을 만들었어요. 친구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까지 모여서 모두 함께 몸으로 마음으로 축하해주었어요.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어린이들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 간 학년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학년은 서울 동묘, 4학년은 서울 수유리, 5학년은 전주 한옥마을, 6학년은 전주 객리단길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각 학년 맞춤형 일정을 재밌고 알차게 보냈습니다.

1학년은 동묘 문구시장, 서울역사박물관 등등에서, 4학년은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 전당 등등에서 알콩달콩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목요일에는 1, 4학년이 함께 롤링볼뮤지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학년은 한옥마을 이곳 저곳과 함께 한복 체험과 방탈출카페 체험 등등을, 6학년은 한옥마을과 객리단길을 누비고, 서바이벌게임과 전

주난장 체험 등등을 하고 역시 목요일에는 5, 6학년이 함께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왔습니다.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여행이 학년별 여행인데, 그 즐거운 여행의 맛을 이번에 이렇게 모두 톡톡히 경험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매일 만 보를 훌쩍 넘게 걸어나서 피곤해진 몸을 금요일 하루 휴교하며 잘 쉬었구요. 선생님들은 토요일 아침 6시에 출발해서 밤 12시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도보여행 1차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힌트로 점심으로는 물회를 먹고, 저녁은 웅심이를 먹었다는 것만 써볼게요.^^ < 교사 : 전선희 >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는 매년마다 남한 내륙에서 가장 높은 산인, 지리산 종주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출 등반이나 하산까지 더하면 그 길이는 약 40km입니다. 여기에 침구류, 먹을 것, 의복, 온갖 산행과 조리 도구 등을 챙긴 가방을 들고 떠납니다. 도보여행이 평이한 길의 연속으로 피로가 누적된다면, 지리산은 다양한 오르내리막길로 체력과 근육을 시험합니다. 이런 힘겨운 여행을 통해서 멋쟁이들은 힘겨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과 함께, 팀워크의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길고 힘겨운 길을 헤치고 나아가다가 도착지점을 발견했을 때의 환희, 쌀쌀하고 배고플 때 함께 먹는 식사와 간식의 즐거움, 긴장되는 미지의 상황에서 함께 주고받는 격려 등이 그것입니다. 지리산 여행이 개강여행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소들을 압축해 경험하는 이 여행을 마친 멋쟁이들은, 방학의 빈틈이 어디갔냐는 듯이 금세 적응합니다. 학교생활과 서로에게 말이지요. 이번에는 지리산을 처음 간 멋쟁이도, 이번이 마지막인 멋쟁이도 모두 기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왕봉 일출도 목격하고, 커다란 부상 없이 무사히 하산한데다가, 귀환 전에 목욕탕에 들렀다 오는 복락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리산 여행은 학교생활에 있어 참 좋은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생회와, 또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지낼 2학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 교사 : 이어진 >

## 방모임

하반기 방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방모임은 이어람 집사님 덕에서 모였습니다.

방모임을 담당하는 가정에 들어서면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거실은 상차림이 잘 준비되어 있고, 솜씨 좋은 모친께서 군침나게 준비한 양념 닭튀김과 샐러드, 감자튀김이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진행말은 이가 준비한 가정과 모임을 위해서 식사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요. 한 주간 지낸 일을 이야기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다과까지 마치면 각자 한 주간 묵상했던 성서일기를 나눕니다. 오른 쪽으로 돌면서 가정별로 고른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두 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지요.

이번 주간말씀은 신명기1-8장까지인데 5장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 얼마나 사랑하시면 질투하시는 하나님하실까. 예배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성심껏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 십계명 통해 <관계와 사랑>을 압축하신 듯하다. 공동체 안에서 도 물을 잘 지켰을 때 공동체에 평화가 오듯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을 잘 지킬 때 복으로 오는 것을 보여줌. 길 가다 궤도 이탈할 때 주님만 따르는 길을 쉽지 않으나 그러기 위해 공동체가 있으니 서로를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성경에서 원하는 모습이라 생각함. 관계의 삶을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

\*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복 주기 위해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강조한다 생각함. 날마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함.

\* 즐거워야 하는데 일이 버겁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경외하는 마음 잊지 말아야겠다.

마지막은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내일 이른 시간에 떠나는 어린이도보여행답사와 사랑방의 각방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매주 많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모여서 나누다 보면 믿음도 다져지고 서로에게 힘을 주게 되니 힘써서 모이게 됩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정혜정 권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454장, 510장

성 경 : 에베소서 1장 17-19절

말 씬 :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평화를 위한 평화는 사라진 시대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평화조차도 거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보편적 가치조차 거래하려는 시장만능의 시대에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민들레 공동체를 위한 기도>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민들레 공동체가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이 어려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여행 중에 있는 멧쟁이 학교, 어린이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안전하고 좋은 여행을 위해서

2)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방생활을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오락가락하는 비와 계속되는 무더위로 공동체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자연예배당 보일러실을 새로 짓는 일과 밭에서 고추를 따고, 배추를 심는 일 등 공동식구들의 손이 많이 필요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곳에서 소리 없이 일하시는 손길들이 있어 공동체는 유지되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늘 이른 아침부터 애쓰시는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